시대에 따른 동북아시아 산업구조 변화 교류

제31차 중한일 산업보건학술대회 참관기

글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제31차 중한일 산업보건학술대회가 6월 13일에서 15일까지 중국 시안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산업보건 연구자, 정책 담당자,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학술행사로
매년 각국이 번갈아 개최하며, 세 나라의 여러 도시에서 지속적인 학술교류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1984년에 한국과 일본의 학술교류 행사로 시작되었는데,
2001년에 중국이 결합하며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하는 학술대회로 발전하였다.
이번 개최지인 중국의 시안은 당나라 시대의 수도였던 곳으로, 현재도 인구가 1,300만 명이 되는 거대 도시이다.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과거부터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하던 국제도시로써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사전 포스터 발표로 이해도 높여…
김규성 조교수 우수 포스터 수상

학술대회 첫날에는 사전행사로 'Mental health, occupational ergonomics, etc.'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중국에서는 MA Jun 중국산업안전보건협회 박사가 'Building a healthy enterprise in China'라는 주제로, 한국에서는 김기연 서울과기대 교수가 'Exposure assessment of formaldehyde regarding aquaculture workers in South Korea'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일본에서는 Morimoto Yasuo UOEH(산업의과대학) 교수가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in asbestos- workplace in Japan'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였다. 중한일 학회의 특징은 포스터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사전에 포스터 관련한 내용을 발표해 오고 있다. 14명의 강연자가 자신이 준비해 온 포스터의 주요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는 대한산업보건협회, 강북삼성병원, 연세대학교, 안전보건공단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김규성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조교수가 발표한 'Difference in night shift type associated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주제는 폐막식 당시 우수 포스터를 수상했다.

중국의 산업독성 분야 특화 연구
다수 발표 이어져

둘째 날, 본격적인 개막식과 함께 학회가 시작되었다. 각국 대표인 중국 WANG Dexue 회장, 한국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 일본 Higashi Toshiaki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중국의 Zhou Zhijun 교수를 비롯하여 중국의 연구자 3명,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1명씩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김형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발표하였는데, '24-hour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creasing precarious labor and workers health' 라는 주제의 발표였다.

중한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제32차 한일중 산업보건학술대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2025년 5월 마지막 주에 열릴 가능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시간에는 다양한 주제의 구연발표가 진행되었다. 중국에서 개최된 행사였기에 중국 연구자의 발표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산업독성 분야, 산업보건정책관리, 사업장 보건관리 영역의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오후 학술대회가 끝난 후에는 환영 만찬이 개최되었으며, 만찬 중에는 중국 전통악기 공연과 노래와 춤이 진행됐다. 중국에서 제공한 다양한 공연과 연주회, 맛있는 음식과 함께 한·중·일이 함께하는 즐거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학술대회 마지막 날에는 'Occupational health, Healthy enterprise creation, etc.' 주제로 심포지엄

이 개최되었다. 6명의 발표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손미아 강원대 교수, 이강숙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관리의사(가톨릭대 명예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오전 심포지엄을 마지막으로 폐회식이 진행되었고, 폐회식에서는 중국의 WANG Dexue 회장이 마무리 인사하며 학술행사를 끝마쳤다.

시대 변화에 따른 삼국의 산업보건… 연구자 위한 교류의 장 필요

제31차 중한일 산업보건학술대회는 총 150여 명이 참여하였고, 한국에서도 30여 명의 참여가 있었다. 최근 의료사태로 인해 여러 학교와 기관의 참여가 많지는 않았지만, 참여한 연구자들의 좋은 연구 발표와 토론으로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었다.

중국의 연구자들은 한국, 일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많이 참여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중국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여러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여러 발표를 진행했는데, 연구 수준이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생각한다. 주로 산업독성 분야의 연구가 많았는데, 기초 분야의 탄탄함을 느낄 수 있었다. ‘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 소속 기관 연구자들의 ‘탄광 노동자의 진폐증’을 다룬 연구 주제가 많았다. 이렇게 특화된 주제를 다루는 대학

이 있을 정도로 여전히 산업보건 분야에서 광산의 위험과 노동자의 건강이 중요한 주제임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이외에도 AI를 이용한 산업보건관리, 태양광 발전 산업에서 금속분진 노출의 주제 등 첨단산업의 이슈도 함께 가지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발표가 많지 않아, 최근 일본의 이슈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을 볼 수 없었지만 과로사 이슈, 석면 노출과 관리, 사업장 보건관리 주제 등 다양한 관심 영역의 연구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다. 비슷한 주제에 관심을 지닌 삼국의 젊은 연구자들이 이 학술대회를 통해 더 활발한 교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한다.

2025년 제32차 한일중 산업보건학술대회는 한국에서 5월 중에 열리게 된다. 한국, 일본, 중국은 유사한 산업보건 분야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최근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른 유사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 학회는 각국의 연구자가 좋은 연구를 함께 공유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교류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학술행사이자 교류의 장이다.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더 많은 학교와 기관의 연구자,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